

첫째 주

제목: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

통독본문: 이사야 44:21-29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찬송 79 장, 통일찬송 40 장

여는 질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공부에도 참석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다양한 교리와 성경적 지식이 쌓입니다. 때로는 그 많은 지식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듣고 배운 것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꼽아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여자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편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인도자께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교리적인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해

기독교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있다면 창조론과 구원론 일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구약 성서의 핵심이요 토대입니다. 성서는 창조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사야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산과 숲 그 가운데 속하 모든 생명체들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 합니다. 한 개인도 아니고 한 민족을 어떻게 모태에서 지으셨다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봅시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자궁에서 잉태케하신 아들입니다. 그 야곱의 12 아들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시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 오래전부터 만들어오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자인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 이십니다.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인도하셨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니 너 역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21-22 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라

2.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 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라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26 절)

무너진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

삶 속으로

1.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기사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창조기록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당신은 창조기사는 어떻게 해석하며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고대에 발생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역사속에서, 우리 안에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2.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타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부 극단적인 구원론자들은 개인이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구원이 일회적으로 완성되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암송 구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21 절)

자녀와의 나눔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합시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두째 주

제목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통독본문 이사야 48:12-13

찬송 “다 찬양 하여라” 새찬송 21 장, 통일찬송 21 장

여는 질문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디 일까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중의 일입니다. 이사야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삶의 시작과 끝, 역사의 기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한 주제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할애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본문이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 장 13 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알파는 히랍어 알파벳 처음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성서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이사야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려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 장 13 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알파는 히랍어 알파벳 처음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성서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이사야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려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사야 41:4 절을 봅시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 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새번역)

여기서 언급된 이런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 열국을 정복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계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문을 여신 이도 하나님, 닫으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2) 유일하신 하나님

두번째로 이사야 44:6 을 살펴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말입니다.

3)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8:12 을 살펴봅시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날까지도 피조물을 돌보시고 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처음부터 끝 날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묘사합니까? (12 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2.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13 절)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심

삶속으로

1.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은 고난으로 얼룩진 우리민족의 현대사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일제 식민지, 동족상잔의 전쟁, 광주사태, 이념적, 지역적으로 아직도 분열된 조국의 현실을 돌이켜 보며 하나님께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2. 여러종교가 공존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와 신앙을 정복자의 관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봅시다.

암송구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12 절)

자녀와의 나눔

환경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멸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세계의 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과 자녀들이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작은 일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가능하다면 실천계획까지 만들어 봅시다.

세 제주

제목: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통독본문: 이사야 55:6-13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새찬송 539 장, 통일찬송 483 장

여는 질문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내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아파 울부짖을 때,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내 삶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 봅시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질문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참가자들로 하여금 어떤 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 편안한 상대와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본문이해

이사야는 이스라엘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따로

있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용서와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께 돌아 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처럼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 있을 뿐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에서 돌아서서 빛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돌아서서 빛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처럼 지금이 바로 그 때라 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속에 살아가는 여러가지 이유중에 하나는 나의 생각과 계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훨씬 높고 심오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는 인생의 경험과 연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해야만 잘못된 것을 깨닫지만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의 조언과 훈계를 듣는 사람은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자신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리고 다르다고. 믿음은 신뢰입니다. 나보다 지각과 명철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6-7 절)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2.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9 절)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

3.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2 절) 기쁨과 평안을 얻음

삶 속으로

1. 당신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까?
2.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당신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암송 구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9 절)

자녀와의 나눔

부모는 언제 자녀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지, 언제, 왜 자녀는 부모의 말과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가능하다면 자녀들이 먼저 충분히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야기 할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의 잔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그냥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네 짜 주

제목: 헛된 경건

통독본문: 이사야 58:1-7

찬송: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새찬송 312 장, 통일찬송 341 장

여는 질문

금식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처럼 40 일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40 일 동안 오로지 물만 먹고 버티는 금식은 극단적인 결심을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40 일 금식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저러시나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럴만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사흘 금식이 고작 최고의 기록입니다. 사십일은 커녕 사흘을 굶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금식에 대해 모진 소리를 합니다. 금식이 나쁜 일인가요? 그가 금식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여자들이 금식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본문이해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중에는, 에스라, 에스더, 엘리야, 다니엘같은 사람들의 금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뿐 아니라 세례요한도 금식을 했고 바울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육신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끊임으로 영적인 각성, 혹은 깨달음에 도달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동기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음식을 금하므로 그 댓가를 치르는 방법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금식문제로 서로 갈등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본인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 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금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예수님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금식하고 큰 소리로 길에서 기도하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내적 경건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외적경건과 일치해야 비로서 온전한 경건, 참된 경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비난하는 금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온갖 불의한 일을 일 삼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대사회에서 금식은 대부분 가진 자들이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금식은 배부른 자들의 종교놀이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의 3 절을 보면 이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합니다. 한 두끼 정도 음식을 안 먹으면서 다른 향락들을 즐길 삶의 여유가 있는 자들이며 집안의 노예들에게 온갖 못된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참된 금식은, 참된 경건은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압제 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 주는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의 외침앞에 서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 봅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행위, 수많은 예배, 기도와 찬양, 성경공부와 봉사활동, 그 모든 일들이 가진 자들의 종교놀이는 아닌지요. 외적경건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내적 경건은 텅빈것은 아닌지요. 바르게 사는것, 사람 앞에 이웃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이사야는 금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4 절)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금식함

2.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금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7)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삶 속으로

1. 오늘날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적이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크리스찬들이 외적 경건과 내적경건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또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암송 구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6 절)

자녀와의 나눔

금식에 대한 의미를 자녀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가능하면 가족 전체가 하루에 한 두 끼 금식을 실천해보고 부모와 자녀들이 느낀점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왕이면 금식을 통해 절약된 비용을 가난 한 자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